

제4주제

서해안 문화관광산업의 특화방안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서해안 문화관광산업의 특화방안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Culture and Tourism Industries
in West Korea)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머리말

세계은행은 중국경제가 1990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0.7%씩 성장하였고, 2001년에는 7.3%, 올해도 이와 비슷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20년간은 중국경제는 연평균 7~8%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속성장 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기관들은 최근 중국의 WTO가입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한국경제의 활로는 장기적으로 중국경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1978년 대비 20년후인 1998년에는 23배 증가하였으며, 실질 소비수준은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기간중 소비지출의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지역별 엥겔계수를 살펴보면, 북경 0.43, 상해 0.40, 광주 0.39, 심천 0.32 등으로 나타나 연안지역은 대체로 개도국 엥겔계수 상한선인 0.5를 벗어나 있다¹⁾. 이들 지역의 교통·통신비는 2배, 교육·문화·오락비는 3.5배가 증가하여 소비구조

1) 엥겔계수는 일반적으로 후진국 0.5이상, 개도국 0.3~0.5, 선진국 0.3이하임

의 변화 속에 생활양식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광수, 2002). 더불어 WTO 가입을 계기로 개혁·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가입 후 3년내 호텔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유진석, 2001).

또한,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관광시장으로서도 세계각국이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13억 인구의 거대한 해외여행시장의 잠재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측된 바 있다. 1998년 5월에는 한국을 여행자유화 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방한 중국인이 연평균 50%이상 증가하고 있어, 중국은 불과 1년여만에 일본, 미국에 이어 한국의 여행업계 인바운드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중국인 방한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1998년 9개 성·시의 한국여행 개방에서 2000년 6월부터는 한국으로의 관광목적여행 허용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중국의 전체 출국자중 한국을 방문한 비율은 4.2%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한국 방문객수는 1991년 78,640명에서 2000년 442,794명으로 연평균 19.2%가 증가하였으며, 세계관광기구(WTO)에서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대상국가별 인바운드 전망에서 한국방문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02).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은 수도권, 경주, 제주도, 부산, 인천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한국을 문화유산이 풍부한 국가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쇼핑과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 문화유산보다는 의류시장과 백화점 그리고, 롯데월드·에버랜드와 같은 테마파크에 관심과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철원, 1999).

이러한 관광현상과 변화에 따라 중국관광객의 주요 입국경로가 되는 서해안지역은 문화관광에 있어서 동북아권에 대비한 대중국 교두보

거점지역으로써 서해안 관광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로 관광객 접근성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서해안 문화관광특화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당위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문화관광의 동향에 대하여 고찰하고, 서해안의 환경변화와 관광산업 현황 및 자원특성 분석과 대중국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중국관광시장 및 관광객 행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국 관광수요시장과 서해안 관광공급시장을 비교분석하여 서해안 문화관광의 특화요소를 발굴하여 서해안과 충남의 문화관광산업의 특화방안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서해안의 관광환경 및 관광산업 현황

1. 환황해권의 관광환경

환황해권의 지리적 경계는 일부 연구자들이 중국의 상하이, 장수, 산둥, 허베이, 랴오닝, 베이징, 텐진, 일본의 남서부, 한반도 전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경계를 환황해권으로 정의하고 있다(Kyushu Bureau MITI, 2000).

현재 서해안과 연계한 환황해권 내에는 10개의 해상노선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11개의 항공노선이 개설되었고, 환황해권에서 관광 지리적 범위는 항공교통의 발달로 1일 여행권이 될 수 있으므로 무

역, 투자, 비즈니스, 물류, 관광 등을 포함하는 통합지역이 될 수 있다(김원배 외, 2000).

[그림 1-1] 환황해권의 지리적 경계



자료 : 김원배 외, 환황해권 주요 항만도시간 연계망 구축전략, 국토연구원, 2000.

세계관광기구(WTO)는 관광산업이 2010년에는 세계적으로 3억 2,800만명의 고용과 함께 10조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동북아시아의 경우 1조 9,530억 달러와 9,8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관광수요는 1980년에 동북아시아의 관광객이 전세계 관광객의 4%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1996년에는 8%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표 II-1> 세계 및 동북아시아의 관광산업에 대한 전망

연도	지역	총수입 (십억\$)	고 용		GDP		자본투자		정부지출	
			일자리 (백만명)	비율 (%)	백만\$	비율 (%)	십억\$	비율 (%)	십억\$	비율 (%)
1998	세 계	4,373 (100.0)	231 (100.0)	9.4	3,564 (100.0)	11.6	779 (100.0)	11.8	253 (100.0)	6.8
	동북아	723 (16.5)	78 (33.8)	9.7	608 (17.1)	10.3	175 (22.5)	10.2	33.4 (13.2)	7.3
2010	세 계	9,963 (100.0)	328 (100.0)	10.9	8,008 (100.0)	12.5	1,769 (100.0)	12.0	542 (100.0)	7.4
	동북아	1,953 (19.6)	99 (30.2)	10.8	1,589 (19.8)	10.9	436 (24.6)	10.2	85.9 (15.8)	7.6

자료 : WTO, <http://www.world-tourism.org&Wttc>, 2000.

WEFA와 노무라연구소의 추정에 의하면, 동북아시아내의 지역간 여행은 1997년에 1,400만명 정도에서 2020년에는 4,200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며,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역간 여행 및 관광에서 주요한 자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NTO, 1999).

<표 II-2> 동북아시아 역내관광객 성장전망(1997-2020년)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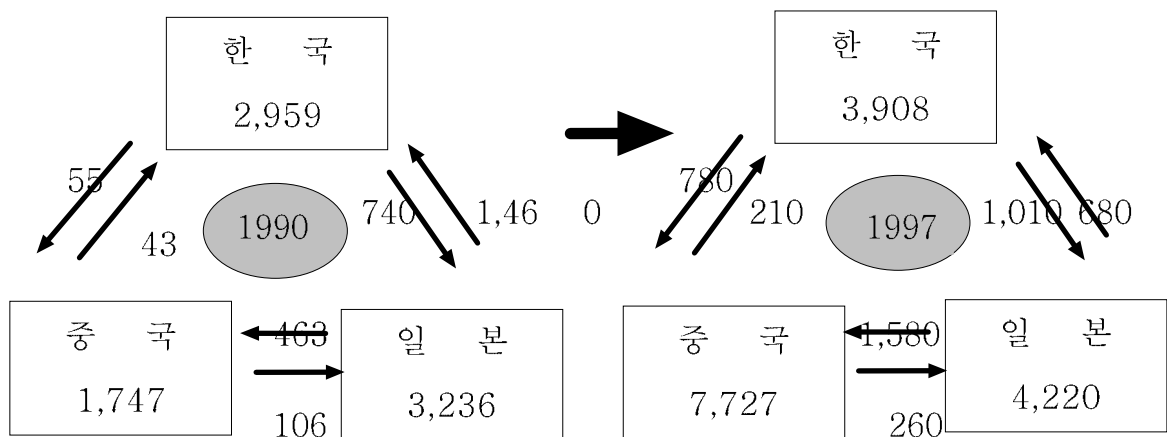
목적지 출발지		동북아	중 국	홍 콩	타이완	한 국	일 본
동 북 아시아	1997	13,890	2,360	5,810	1,180	2,090	2,450
	2020	42,190	9,420	18,030	3,380	4,640	6,720
중 국	1997	2,770	-	2,300	-	210	260
	2020	14,580	-	12,050	-	1,270	1,260
홍 콩	1997	630	-	-	260	100	270
	2020	4,320	-	-	1,960	370	1,990
일 본	1997	5,450	1,580	1,370	820	1,680	-
	2020	12,020	6,170	1,850	1,100	2,900	-
한 국	1997	2,250	780	360	100	-	1,010
	2020	6,510	3,250	960	320	-	1,980
타이완	1997	2,790	-	1,780	-	100	910
	2020	4,760	-	3,170	-	100	1,490

자료 : WTO&KTPA, 2000.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간 역내 관광흐름을 1990년과 1997년으로 비교해 보면 한·중과 중·일간에 양방향 이동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2] 한·중·일 3국간 역내 관광흐름(1990-1997년)

(단위 : 천명)



주 : 중국은 외국인만 포함

환황해권내 관광활동은 대부분 각국의 수도에서 이루어지는데, 각국의 수도인 베이징, 서울, 도쿄에 외국관광객의 대다수가 방문하고 있다. 이는 관광기반시설이나 국제적 교통·통신시설이 각국의 수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도시에도 관심을 끌만한 관광자원이 존재하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여행객의 대부분이 직접 지방도시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황해권내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도시간 협력사항에서 관광분야는 한-중-일의 교류의 장 및 관광특구 지정, 공동 관광패키지 상품 개발, 동북아 크루즈 관광상품 및 내륙루트 개발과 공동관광안내지도 작성,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김원배외, 2000).

<표 II-3> 환황해권 도시간 협력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협력사항

구 분	환 황 해 권 협 력 사 항
도시간 네트워크 및 자유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협력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 자유항 네트워크(free port network) 구축
물류 및 사회간접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페리 도입 • 정보망 확충 및 항만, 장비, 시스템 표준화 • 동북아 외부지역으로부터의 화물에 대한 공동협력 서비스 • 컨테이너 풀 시스템 및 운송시장의 자유화
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재팬타운 등과 같은 교류의 장 건설 및 관광특구 지정 • 공동패키지관광 및 도시를 상징하는 기념품 개발 • 동북아 크루즈관광상품 및 내륙루트 개발 • 해외시장에 대한 공동 홍보 • 한국어, 중국어, 일어판 환황해권 관광지도 작성 • 항만도시의 3개 국어(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용 • 정부간의 관광합의, 상호비자, 특별한 경우 정기회의 등 추진 • 도시간 관광협력위원회(Inter-city Tourism Cooperation Council) 구축 • 국가별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 자유항공수송 증진 및 항공교통제한 완화 • 크루즈 관광코스를 위한 시설개발 : 호텔 체인 등

자료 : 김원배 외, 환황해권 주요 항만도시간 연계망 구축전략, 국토연구원, 2000.

2.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관광환경의 변화분석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여러가지 직·간접효과로 1995년에서 2010년의 통행시간 단축효과를 측정한 결과, 전국을 대상으로 5개 시·도의 평균은 14.3%의 시간거리 단축율을 나타내며, 충남(20.3%), 경기(17.8%), 전북(17.1%), 인천(12.6%), 전남(12.4%) 등의 순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간 통행시간 단축효과

구 분		지역간 평균 통행시간1)		평균 단축시간 (B-A)	단축률(%)
		1995(A)	2010(B)		
전 국 (165개 시·군)	인 천	26,624	23,265	3,359	12.6
	경 기	31,227	25,692	5,535	17.8
	충 남	30,734	24,287	6,447	20.3
	전 북	29,448	24,329	5,119	17.1
	전 남	37,867	33,194	4,673	12.4
	계	32,972	28,336	4,636	14.3
서해안 시·도 (83개 시·군)	인 천	16,101	13,911	2,190	13.6
	경 기	14,026	11,639	2,388	17.3
	충 남	12,433	9,691	2,742	21.3
	전 북	12,625	10,279	2,346	18.3
	전 남	17,295	14,493	2,802	16.3
	계	14,433	11,876	2,557	17.9
서해안고속도로 영 향 권2) (35개 시·군)	직접영향권	5,669	4,353	1,315	23.1
	간접영향권	5,561	4,153	1,427	26.1
	계	5,617	4,247	1,369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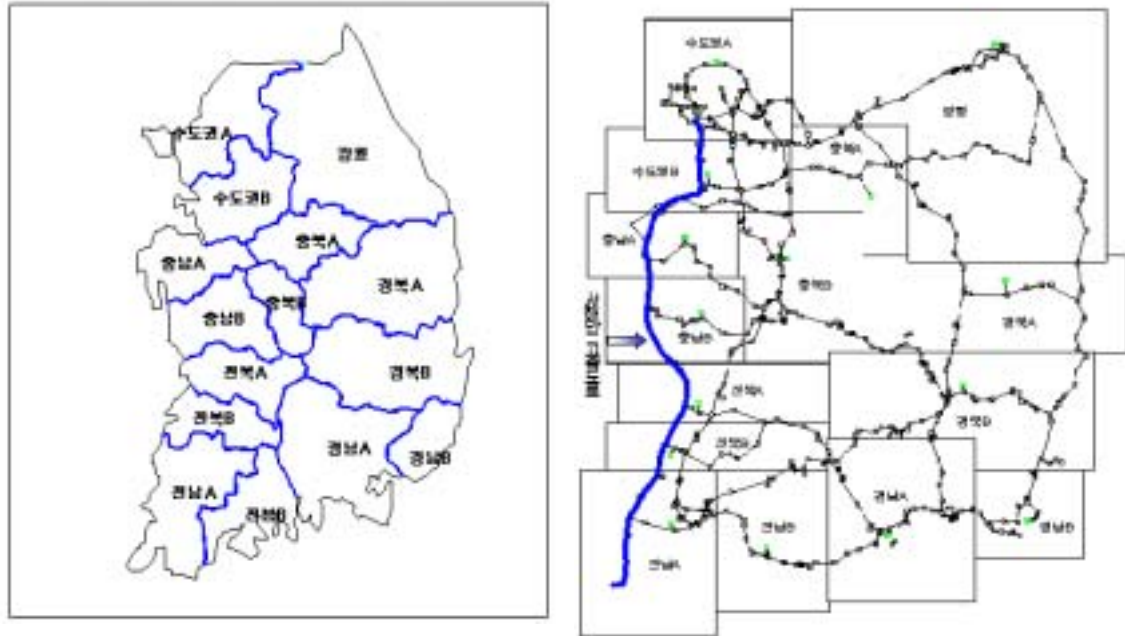
주 : 1) 지역간 평균 통행시간은 전국, 서해안의 5개 시·도, 서해안고속도로 영향권 등 각각의 분석대상 지역내의 모든 시·군간의 통행시간의 합을 해당 시·군수로 나눈 것임.

2) 서해안고속도로의 직접영향권에는 인천광역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화성시,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홍성군, 서천군,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영광군, 무안군, 목포시 등 17개 시·군이 포함되고, 간접영향권에는 수원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부천시, 의왕시, 아산시,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부여군,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장성군, 영암군, 나주시 등 17개 시·군이 포함됨.

자료 : 김정연·이종상,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한 지역활성화 방안, 제1회 서해안포럼, 2001.

이와 같이 서해안지역의 시·도들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물리적인 접근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됨으로써 지역의 입지적 잠재력과 지역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활용 잠재력이 높아질 것이다(김정연·이종상, 2001).

[그림 11-3] 지역별 관광산업 수출변화분석의 지역구분과 교통망도



- 주: 1) 수도권A - 서울, 인천(강화, 옹진포함), 의정부, 동두천, 고양, 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김포, 철원(강원도)
 2) 수도권B - 성남, 과천,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양평, 수원, 안양, 광명, 평택, 안산, 오산, 시흥, 군포, 여주, 이천, 용인, 안성
 3) 충남A - 천안, 아산,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4) 충남B - 대전, 공주, 보령, 금산, 연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5) 전북A - 군산, 익산, 김제,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정수
 6) 전북B - 정읍, 남원, 임실, 순창, 고창
 7) 전남A - 광주, 담양, 곡성, 화순, 함평, 장성, 목포, 나주, 강진, 해남, 무안, 완도, 진도, 신안
 8) 전남B - 여수, 순천, 여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진흥

자료 : 이상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평가모형의 개발과 응용, 국토연구원, 2001.

또한,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간 접근성 향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단위 수송비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과 건설 후의 지역별·산업별 재화의 평균 수송비 변화율은 평균 수송비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경우로는 충남 A 지역에서 수도권 B지역으로 이동되는 경우로 평균 교통비용이 4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B지역에서 충남 A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평균 수송비가 48.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건, 2001).

<표 II-5>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별 관광산업 수출변화

구 분	수도권A			수도권B			충남A			충남B		
	98수출 (억원)	수출 변화 (억원)	변화율 (%)	98수출 (억원)	수출 변화 (억원)	변화율 (%)	98수출 (억원)	수출 변화 (억원)	변화율 (%)	98수출 (억원)	수출 변화 (억원)	변화율 (%)
음식 및 숙박	4,156	5	0.1	1,025	2	0.2	286	1	0.2	439	2	0.4
운수 및 보관	88,249	184	0.2	2,288	4	0.2	291	1	0.3	1,804	8	0.4
문화오락서비스	1,165	3	0.3	1,040	3	0.3	12	-	0.4	78	1	0.7
전 산 업 계	690,464	6,869	1.0	111,727	4,840	4.3	26,041	2,009	7.7	71,744	1,064	1.5
구 분	전북A			전북B			전남A			전남B		
	98수출 (억원)	수출 변화 (억원)	변화율 (%)	98수출 (억원)	수출 변화 (억원)	변화율 (%)	98수출 (억원)	수출 변화 (억원)	변화율 (%)	98수출 (억원)	수출 변화 (억원)	변화율 (%)
음식 및 숙박	277	1	0.2	90	-	0.2	486	1	0.1	191	-	0.2
운수 및 보관	1,386	3	0.2	307	1	0.2	2,852	4	0.2	2,751	5	0.2
문화오락서비스	55	-	0.4	12	-	0.3	96	-	0.2	27	-	0.3
전 산 업 계	37,002	428	1.2	2,148	19	0.9	61,353	868	1.4	93,811	308	0.3

자료 : 김홍배·임재영,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지역별 관광산업 수출입 변화”, 한국관광학회, 제51차 학술심포지엄 및 정기학술발표대회, 2002에서 재정리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관광산업의 수출변화는 김홍배·임재영(한국관광학회 제 51차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2002)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은 4,053.4십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관광관련산업인 음식점 및 숙박업의 수출은 1.4십억원, 운수 및 보관업의 수출은 20.1십억원, 그리고 문화오락서비스업은 0.8십억원으로 총 22.3십억원의 관광수출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홍배·임재영, 2002).

각 지역별로 관광관련산업 수출변화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 충남B지역의 수출 증가율이 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남A와 전북A지역이 각각 0.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 및 보관업의 경우에도 수

출증가율이 높은 지역들로는 충남B지역과 충남A, 그리고 전북A 지역으로 각각 0.4%와 0.3%, 그리고 0.2%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문화오락서비스업의 경우 역시 이들 3개 지역이 각각 0.7%와 0.4%, 그리고 0.4%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홍배·임재영, 2002).

3. 서해안 지역개발계획과 관광자원 개발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의 서해안지역 개발전략은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교류기반을 구축하여 신산업지대망을 구축하고, 동북아 관문역할을 수행할 물적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신개발거점축을 조성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국제수지개선을 꾀한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서해안에 접한 광역권계획의 개발방향은 아산만권에 수도권 산업분산을 유도하고 대중국 물류 분산거점지역으로 조성하며, 전주·군장권은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 생산거점 형성 및 복합산업지대 조성과 영상산업을 특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광주·목포권은 중국 및 동남아경제권과의 국제교류거점 육성 및 광소자, 레이저, 광통신 등 첨단 광산업 및 지식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01년 12월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경기일원, 충남, 전북, 전남지역의 교통체 해소 및 물류비 절감,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국토 간선도로망계획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대륙연계에 대비한 간선도로망 확충 추진으로 국도 1호선(자유의 다리~판문점), 국도 7호선(고성~휴전선) 등 단절된 6개 국도를 우선적으로 복원하고, 7×9의 남북

7개축 중 서울~평양~신의주(중국), 서울~원산, 강릉~청진~선봉(러시아)축을 우선 연결시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철도망 개발계획은 동북아 철도망의 일환으로 서해안 경유지역은 목포~서울~신의주~중국동북아 연결노선으로 설정하고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아시아횡단철도(TAR)등과 연결하여 동북아 간선철도망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한 호남선 정비, 전라선 정비(익산~여수), 장항선 확충(장항~군산 신설), 산업지원 철도망의 확충, 남북관계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남북철도망 신설·연장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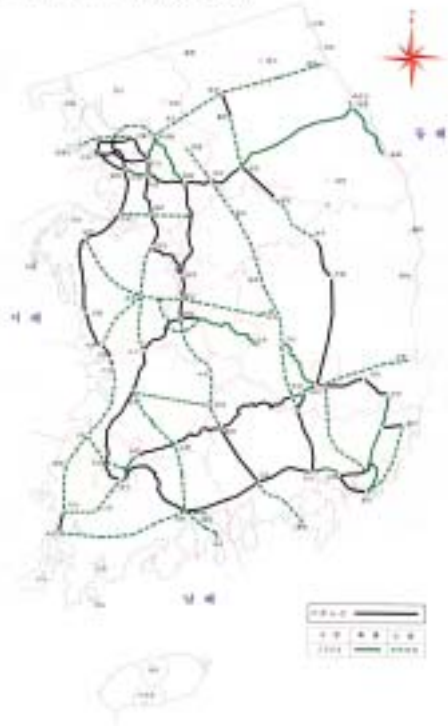
항만개발계획은 대중국과의 교역증가에 따른 항만물동량에 대비하여 신항만 건설과 기존항만 정비를 통하여 전국적인 항만체계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인천, 평택(아산), 군장, 목포 등을 서해안지역의 권역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마산, 울산, 포항 등을 동해안 국가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등의 신항만 개발계획과 평택(아산)항, 군·장항을 지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보령항의 신설과 새만금신항 건설은 새만금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서해안지역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육성하여 항공, 항만, 정보통신, 물류, 레저기능을 갖춘 복합배후도시를 병행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물류부문은 국제거점항만과 배후 국제거점공항을 연계하여 동북아의 환적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sea-air 복합수송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아래 물류 수송분담을 위한 연안해운 및 하천하류의 주운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그림 11-4] 국가 주요 교통계획도

㉠ 고속도로망계획 (200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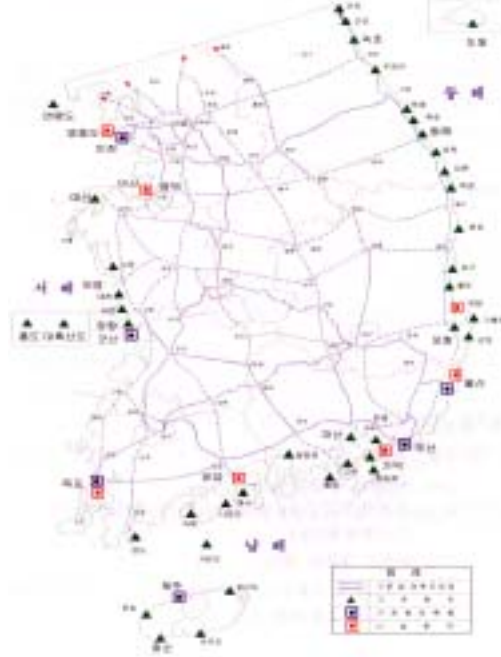
㉡ 간선철도망계획 (2000~2004)



㉢ 공항시설계획 (2000~2004)



㉣ 항만시설계획 (2000~2004)



특히, 서해안지역은 중국과의 인적·물적교류확대와 중국 동해연안의 공업지대형성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해상, 항공 등의 교통여건이 우수하여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관광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김덕수·박형창, 2001).

서해안과 접해있는 남해안을 국제적 수준의 대표적인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경상남도-전라남도 목포에 이르는 1개 광역시, 10개시·12개 군의 14,000km²에 달하는 지역에 부산도시관광권, 해양레저스포츠관광권, 종합휴양권, 역사문화관광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 개발을 2009년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한국관광연구원, 2000)

4. 서해안 관광개발·자원 현황 분석

서해안의 관광자원으로 자연자원이 관광요소가 되는 국립·도립·군립공원의 분포를 보면, 자연공원은 인천을 제외한 경기 4개소, 충남 5개소, 전북 10개소, 전남 1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관광객의 편익을 위하여 지정된 관광지는 인천 3개소, 경기 14개소, 충남 22개소, 전북 18개소, 전남 20개소이며, 종합적 관광거점지역을 위하여 개발하는 관광단지는 인천 용유무의관광단지, 전남의 해남화원 관광단지 등이 개발을 추진중에 있는 실정이다.

관광객의 종합 위락·놀이 활동을 위한 종합·전문휴양업은 인천에 송도유원지 1개소, 경기도에 에버랜드, 천마산스키장, 한국민속촌, 서울랜드, 서울리조트스키장 등 5개소가 있고, 충남은 서대산 레저타운

1개소가 있다. 체육시설로 골프장은 경기도가 66개소로 가장 많고, 스키장과 요트장도 경기도가 5개소와 9개소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과 청소년수련시설이 도시민과 청소년의 관광활동을 위하여 지역별로 입지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휴양을 위한 온천지구는 경기 16개소, 충남 12개소, 전북 13개소, 전남 4개소, 인천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II-6> 서해안 관광개발·자원 규모(1999년)

구 분		전 국		인 천		경 기		충 남		전 북		전 남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자연 공원	국립	20	6,473.1	-	-	1	38.74	2	93.02	4	479.58	5	531.42
	도립	22	747.9	-	-	1	36.45	3	78.44	4	140.92	6	81.81
	군립	29	307.9	-	-	2	25.44	1	1.95	2	22.07	-	-
	소계	71	7,528.9	-	-	4	100.63	6	173.41	10	642.57	11	613.23
관 광 지		194	148.5	3	2.145	14	5.71	22	13.05	18	12.67	20	35.64
관광단지		9	50.4	1	6.248	-	-	-	-	-	-	1	5.08
휴 양 업 (종합/전문)		28	32.8	1	0.252	5	11.58	1	1.76	-	-	-	-
체육 시설	골프장	135	146.4	2	0.837	66	81.04	4	4.76	3	1.91	5	6.13
	스키장	15	15.8	-	-	5	2.35	-	-	1	4.40	-	-
	요트장	6	0.2	-	-	9	0.09	2	0.01	-	-	1	0.01
	승마장	24	0.4	1	0.017	1	0.04	-	-	1	0.02	-	0
	소계	180	162.8	3	0.854	81	83.53	6	4.77	5	6.33	6	6.14
도시공원		5,341	308.3	26	22.04	54	88.70	66	23.57	22	19.71	54	37.72
청 소 년 수련시설		533	22.7	16	0.371	73	4.81	48	1.45	29	2.62	56	2.55
유 원 지		171	124.7	5	5.191	18	10.29	7	2.22	7	11.69	13	6.02
자연휴양림		83	1,187.9	-	-	6	45.39	10	23.65	9	44.96	11	27.85
관광농원		379	9.4	-	-	19	0.39	52	1.30	29	0.61	71	2.08
온천지구		122	153.8	1	0.907	16	13.61	12	10.09	13	21.76	4	4.06
계		7,111	9,730.1	46	40.23	290	364.61	230	255.27	143	762.92	247	740.38

자료 : 한국관광연구원,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2000.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는 관광특구는 2000년에 서해안 지역에 경기도 동두천, 평택시 송탄(2개소), 충남 아산시 온천, 보령 대천해수욕장(2개소), 전북 무주구천동, 정읍내

장산(2개소), 전남 구례(1개소) 등이 있고, 인천은 지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안 지역 시·도별로 외국인 숙박에 적합한 관광숙박시설은 2000년 7월 현재 인천이 관광호텔 10개소·가족호텔 1개소, 경기도 관광호텔 41개소·가족호텔 2개소·휴양콘도미니엄 11개소, 충남은 관광호텔 12개소·가족호텔 1개소·휴양콘도미니엄 4개소, 전북은 관광호텔 12개소·가족호텔 3개소·휴양콘도미니엄 5개소, 전남은 관광호텔 18개소·가족호텔 1개소·휴양콘도미니엄 2개소가 있다.

또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회의시설 현황은 1999년 현재 인천·경기 3개소, 대전·충청에 4개소, 광주·전라에 4개소가 있으며, 카지노시설은 2000년 현재 인천에 1개소가 있다.

관광상품으로 문화관광축제는 경기의 여주도자기박람회·이천도자기축제, 충남의 금산인삼제·서천모시문화제·보령머드축제, 전북의 남원춘향제·무주반딧불축제·익산보석축제, 전남의 영암왕인축제·진도영등축제·강진청자문화제 등이 외래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개최되고 있다

시·도별 지역특산품으로는 인천의 화문석과 순무, 경기의 포도·조기·명주·도자기·옹기·명석·삼베, 충남의 인삼·한산모시·사과·호두·참외·복숭아·토기·거봉포도, 성환개구리참외·젓갈류·청양구기자·태안해옥, 전북의 한지·부채·죽세공품·목기·미나리·표고버섯·석기, 전남은 옥석·목화·배·굴비·죽세공품·진돗개·청자 등이 판매되고 있다.

향토음식과 토속주는 인천의 멧게회·조개탕, 경기의 막걸리·보쌈김치·수원갈비·양주메밀국수, 충남의 오골계탕·참계매운탕·우렁찌게·소북갈비·대하·홍성한우고기·꽃게장·인삼어죽·장어구이·장국밥·인삼주

·왕주·면천두견주·한산소곡주·계룡백일주, 전북의 전주비빔밥·청국장·표고장국·북분자술·순창고추장, 전남의 해물장국·배장어구이·석화·죽순·애저탕·용봉탕 등이 인기가 있다.

Ⅲ. 중국 관광시장의 특성분석

1. 중국과 한국의 문화관광 및 경제교류

한·중양국간에 있어서의 經濟·文化 交流는 이미 오래전부터 悠久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기는 문헌상 약 BC 7세기부터 이미 해상 또는 육지를 통하여 중국의 貨幣와 각종 공산품들이 한국에 유입되었고, 한국의 土産 및 특산품들은 중국에 수출하였다는 것이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특히, AD 9세기경에는 중국의 동부해안으로부터 당시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 이르는 일대에는 신라승려, 상인, 유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신라방”이 형성되었다 한다.

環黃海圈地域은 신라, 당, 일본의 삼국간에 해상무역은 물론 공업, 조선업, 승려 및 유학생, 선원, 통역 등 주로 해상에 관련된 활동이 황해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어, 이미 1000여년전에 황해를 사이에 두고 한, 중, 일 삼국간에는 環黃海圈 時代를 형성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 중, 일 삼국은 수천년 교류를 통하여 역사 문화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동질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 지역에 공동의 文化遺産인 儒敎文化는 한국과 일본에 도입된지 이미 1000여년이나 지나 사회풍기, 윤리도덕, 가치관 및 관리모델의 형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서양의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가 강한 한국, 중국, 일본은 유교에 그 바탕을 두고 있어 앞으로 環黃海圈

經濟協力에 있어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고유의 민족문화와 유교문화 및 서양문화를 적절히 적합하고 동양문화와 현대과학문화를 적절히 융합하여 서방과는 다른 독특한 경제상과 관리모델을 창조하였다. 따라서 環黃海圈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유산은 상호 인적교류와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순조로운 문화관광의 협력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붕 소유권을 둘러싸고 1973년 중국과의 접촉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韓・中間에는 무역의 기미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서해안지역을 對中國進出의 교두보로 하는 「西海岸地域 開發」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88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西海岸開發進出委員會」를 설치하였고 黃海를 사이에 두고 對岸關係에 있는 중국과 하나의 공동경제형성을 주도하였다. 이후 1992년 韓・中수교와 함께 양국의 「環黃海沿岸圈 經濟開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김덕수·박형창, 2001).

2. 중국의 문화관광소비와 해외관광 성향

1) 중국인의 문화관광 소비성향

중국인들은 가처분 소득에서 1991년 1,701元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약 3.7배 증가한 6,280元으로 나타나 점차 생활의 여유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중국인 1인당 소비성 지출의 연간 구성비를 보면, 비율이 제일 높은 '식품비'는 점차 감소하여 '85년 52.3%에서 2000년 39.2%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소비부문 1위에 올라있고, '의복비'도 점차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1> 중국인 1인당 연간 소비성 지출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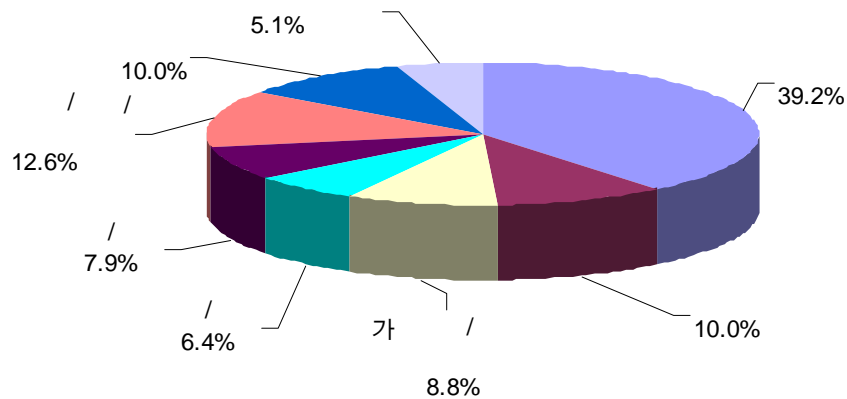
(단위:%)

구분	1985	1990	1995	2000
식품	52.3	54.2	49.9	39.2
의복	14.5	13.4	13.6	10.0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	8.6	10.1	8.4	8.8
의료/보건	2.5	2.0	3.1	6.4
교통/통신	2.1	1.2	4.8	7.9
레크레이션/교육/문화서비스	8.2	11.1	8.8	12.6
주거	4.8	7.0	7.1	10.0
기타용품 및 서비스	7.0	1.0	4.3	5.1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보」, 2001.

반면, ‘의료·보건’, ‘교통·통신’, ‘레크레이션·교육·문화서비스’, ‘주거 부분’의 소비 구성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레크레이션·교육·문화서비스’의 경우 ’85년 8.2%로 ‘식품’, ‘의복’,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 다음으로 소비성 지출부문 4위를 차지하던 것이 ’99년도와 2000년도 2위로 올라섰다.

[그림 III-1] 중국인 1인당 연간 소비성 지출 구성비(2000년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보」, 2001.

2000년 ‘레크레이션/교육/문화서비스’의 지출 구성비 전체평균은 12.6%이나 고소득층 가정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져 최저 소득가정에서 11.3%인 것이 최고 소득가정에서는 13.2%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관광을 포함한 오락, 여가활동 및 문화, 교육관련 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국인의 해외 관광성향

중국정부의 자국 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개방은 1983년과 1984년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친지방문을 허용하면서부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1995년부터 중국인의 아웃바운드여행이 증가하여 1998년 9개 성·시의 한국여행이 개방되었다.

2001년에는 출입국 개혁조치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맞춰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부응, 문호를 개방하는 일환으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포함한 6개항의 출입국관리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따라서 발표된 출입국조치에 따라 여권발급이 간소화되어 출국시 신분증과 호적등본만 있으면 여권신청이 가능해지고, 2002년부터 상해(上海), 심천(深川) 등 일부 도시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중·대형 도시민들은 출국시 이 두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여행국가의 초청장이 없이도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중국인의 공무, 상무 해외여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여행이 특정계층 위주에서 일반서민 계층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인 해외여행 성향 및 주요 송출지역을 보면, 중국인의 여행목적지 선호도는 고유의 문화적 색채가 있는 국가로 변화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도시, 오락, 쇼핑활동을 선호한다. 여행목적으로는 공무목적의 여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성별·연령별로는 중년층 남성이 해외여행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경제력이 높아진 화남지역, 화북지역, 화동지역, 동북지역 순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있고, 직업별로는 대기업간부, 개인사업자, 공무원 등이 해외여행의 주도층이다.

통계상으로 보면 홍콩, 마카오 등지와 연결되는 광둥, 운남, 광서 등 남부 접경지역과 러시아, 몽고, 북한으로 통하는 흑룡강성, 내몽고 등 북부 접경지역의 출국비율이 높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해외여행은 광둥, 상해, 북경, 강소, 절강, 복건 등 주로 연안의 경제개발구역이 국외여행을 주도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02).

2000년도 중국인의 출국여행은 조직적이고 완만한 발전을 보이며 이미 아시아 지역의 비교적 빠른 신흥 관광 송출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인 출국자수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하여, 10,472,600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3.4%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공무로 출국한 중국인은 4,841,800명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하였으나 개인용무로 출국한 사람은 5,630,900명으로 전년대비 32.0% 증가하였다.

중국인이 방문 한(최초 목적지 기준) 상위 10개 지역 및 국가를 보면 홍콩, 마카오, 태국,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싱가포르, 북한, 호주의 순이다. 또한 홍콩, 일본, 한국, 북한, 몽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방문한 경우는 전년대비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보였다(중국국가여유국(www.cnta.com), 「중국여유통계연감」, 2001).

해외여행에 대한 중국인들의 특성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며 국가들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한국의 경우 2001년 현재 남자 62.4%, 여자 37.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전체 방문객 평균 이상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하여 방한외래객 기혼자 비율은 72.3%(방한중국인): 59.1%(전체외래객), 홍콩 외래객 기혼자 비율은 81.0%(중국인) : 67.0%(전체외래객), 싱가포르 외래객 기혼자(남성) 비율은 86.0%(중국인) : 73.0%(전체외래객) 등으로 즉, 미혼자의 해외여행 비율이 각 국가별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 30대, 20대, 40대의 순이며, 호주의 경우 30대, 40대, 50대 등의 순으로 방문객이 많다. 한국 방문 중국인의 경우 20세 이하의 비율이 6.5%로 나타났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 20세 이하의 연령대는 남녀 모두 외래객 조사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 젊은층의 한국방문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주로 기업인·경영직, 공무원·군인, 관리직, 회사원, 전문직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하였고, 연평균 가계 수입은 전체 외래객의 수입보다 훨씬 낮다. 2000년 싱가포르 방문 중국인의 연평균 수입은 S\$9,000(전체외래객 S\$66,000)였고, 중국관광객의 85.2%가 연간 S\$9,999이내의 수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이 방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50~60%대가 첫방문이었고, 최근 3년내 방문의 경우, 방한 중국인(2001년)의 1회 방문율은 83.8%, 싱가포르 방문 중국인(2000년)의 1회 방문율은 89.6%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업무목적 방문비율이 다소 높으나 관광과 업무의 비

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일본은 업무비율이 월등히 높고(업무 39.6% 대 관광 5.3%), 반대로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 관광목적 방문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은 50%대를 다소 넘는 사람들이 개별여행으로 왔으며, 홍콩 방문 중국인들은 개별여행 비율이 낮고(23%), 호주 방문 중국인은 오히려 개인여행이 76%대로 많았다.

호주방문 중국인은 혼자 온 경우가 57%대로 가장 많았고, 한국과 일본은 단독여행이 21~23%대로, 홍콩, 싱가포르 방문 중국인의 경우 10%대로 나타났다. 가족동반 비율은 한국이 24.0%, 일본 11.1%, 홍콩 32.0%, 싱가포르 32.2%로 조사되었다. 친구·사업동료를 동반한 경우도 한국과 일본 모두 유사하게 52.8%, 57.3%로 아직까지 친구·사업동료의 동반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방문중 활동으로는 한국의 경우는 쇼핑, 관광, 식도락 등을 주로 하였으며 쇼핑의 경우 특히 참여도와 소비가 높았다. 싱가포르 방문 중국인의 경우 92.8%가 쇼핑에 참여하여(전체방문객 73.2%) 쇼핑비로 평균 S\$582를 지출, 전체 외래객 평균(S\$434)보다 S\$148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방한 중국인도 쇼핑비로 US\$343을 지출, 전체외래객 평균 US\$311보다 높았다.

또한, 잼블링에 대한 참여도가 타 국가 방문객들보다 높게 나타나 한국의 경우 중국인 20.7%로 전체 외래방문객 평균 10.3%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호주 방문객의 경우도 '98년도 43.0%에 이어 '99년도 47.0%가 카지노를 방문했다.

중국인들이 즐겨 구매하는 품목으로는 싱가포르에서는 보석(59.8%)과 식품류(36.4%)가, 홍콩에서는 의류(55%)와 보석류(42%)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인삼·한약재(45.1%)와 의류(43.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약초·한약재를 구입하기는 하는데 그 비율은 각각 8.1%와 9.0%로 미미하게 나타나 한국의 인삼·한약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각국의 재방문 의사에 대해서 한국은 69.9%, 싱가포르 95.4%, 홍콩 80.0%로 나타나 한국의 재방문 의사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전체 방문객의 응답에서도 같은 결과였다.

방문시 숙박장소는 호텔비중이 가장 높긴 하나, 한국에서는 호텔 이용(69.1%)이 전체평균(85.1%)보다 낮고, 여관·게스트하우스 이용(25.7%)은 평균(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거나, 싱가포르에서는 오히려 평균이상으로 호텔 이용이 높았다.

관광정보원으로 싱가포르 방문 중국인의 경우 최근 3개년간 여행사 비율(28.9%)은 낮아지고 친구·친척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80.3%). 방한 중국인의 경우 친구·친지·동료(36.1%), 여행사(27.1%), 다음으로 인터넷(16.8%)이 금년도 제 3의 정보원으로 등장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밖에 광고, 보도 또한 중요한 정보원으로 등장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01).

3. 중국인의 방한 현황과 관광특성

1) 중국인의 방한 현황

중국의 전체 출국자중 한국을 방문하는 비율은 1999년까지 3%대에 머물다가 2000년 처음으로 442,794명이 방문하여 4.2%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8년도 중국 정부가 한국을 국외여행 자유화 국가로 지정한 이래 1999년과 2000년의 중국인 총 출국자수 증가율보다 방한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갖게

해주고 있다.

‘WTO Tourism 2020 Vision’에 따르면 중국의 아웃바운드는 1995년부터 2020년 기간중 연 12.8%의 성장률로 증가해 세계 아웃바운드 성장률보다 3배 정도 높게 성장할 것이며, 2020년에는 중국은 세계 4위의 아웃바운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때가 되면 약 1억 명의 중국인이 아웃바운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5.7%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III-2> 연도별 중국인 출국현황 및 방한현황(1991-2000년)

연도	전체출국자		한국방문자		
	출국자(명)	증감률(%)	한국방문자(명)	증감률(%)	구성비
1991	2,134,000	-	78,640	-	3.7
1992	2,930,000	37.3	86,865	10.5	3.0
1993	3,740,000	27.6	99,957	15.1	2.7
1994	3,734,000	- 0.2	140,985	41.0	3.8
1995	4,520,000	21.0	178,359	26.5	3.9
1996	5,061,000	12.0	199,604	11.9	3.9
1997	8,172,000	61.5	214,244	7.3	2.6
1998	8,426,000	3.1	210,662	- 1.7	2.5
1999	9,232,000	9.6	316,639	50.3	3.4
2000	10,473,000	13.4	442,794	39.8	4.2

주 : 1) '98년부터 출국에 취업목적자 포함.

2) 중국인 전체출국자수는 편의상 천단위 수치를 일단위로 바꾸어 계산.

자료 : 1) World Tourism Organization,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각년도.

2) World Tourism Organization, 「Tourism Highlights 2001」, 2001.

3)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PATA Quarterly Statistical Report」, 2001.

4)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년도.

한국과 중국간에 항공운항을 개시한 이래 한중간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은 연차적으로 증설되어 왔다. 2001년 12월 현재 한국측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2개사를 비롯 중국측의 북방항공, 중국국제항공, 동방항공, 서북항공, 남방항공, 서남항공, 운남항공 등 7개사 도합 총

9개 항공사가 주당 176편을 운항 중에 있고, 총좌석공급량도 45,506석에 이르고 있다.

<표 III-3> 목적지별 중국인 아웃바운드 전망

목적지	연성장률(%)		
	1995-2020	2000-2010	2010-2020
홍콩	7.9	10.0	10.0
마카오	2.8	3.5	3.0
러시아	7.4	8.0	6.0
태국	9.4	10.0	10.0
일본	11.2	12.5	8.0
싱가포르	11.1	10.0	8.0
한국	5.7	5.0	5.0
미국	13.6	14.0	12.0
말레이시아	14.0	15.0	11.0
베트남	22.5	21.0	9.5
기타	21.0	18.0	16.8
전체	12.8	13.5	12.7

자료 : World Tourism Organization(WTO), 「Tourism 2020 Vision」, 2000.

2) 중국인의 방한 교통수단 및 노선

선편 여객수송은 2001년 8월 현재 10개 노선에 주당 운항횟수 30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편이용은 일반 관광객보다는 소규모 무역상들이 주로 이용하며, 간혹 청소년 단체가 활용하고 있다.

교통수단별로 90년대 초반에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인천항을 통한 입국비율이 가장 높았으나('91년도 68.9%), '93년부터 인천항을 통한 입국이 전년도의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공항 입국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리하여 최근 3개 년도에는 전체 입국자의 약 90%가 공항을 이용, 방한하고 있으며 공항 중에서도 김포공항 이용률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으나 인천공항의 개항으로

2001년도부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표 III-4> 교통수단별 입국(승무원 제외)(1991-2000)

구분	공항						항구					
	김포		김해		제주		부산		인천		기타	
	총수(명)	구성비(%)	총수(명)	구성비(%)	총수(명)	구성비(%)	총수(명)	구성비(%)	총수(명)	구성비(%)	총수(명)	구성비(%)
1991	12,436	28.1	241	0.5	19	0.0	918	2.1	30,454	68.9	120	0.3
1992	13,436	29.7	190	0.4	29	0.1	560	1.2	30,779	68.1	193	0.4
1993	23,575	58.9	296	0.7	103	0.3	511	1.3	15,243	38.1	283	0.7
1994	37,188	58.7	352	0.6	98	0.2	1,573	2.5	23,783	37.6	308	0.5
1995	60,130	74.1	587	0.7	111	0.1	1,862	2.3	17,863	22.0	567	0.7
1996	65,977	72.2	2,057	2.3	172	0.2	2,998	3.3	19,239	21.0	972	1.1
1997	69,710	73.4	4,840	5.1	446	0.5	3,863	4.1	14,560	15.3	1,580	1.7
1998	83,793	80.3	3,677	3.5	3,044	2.9	2,393	2.3	10,012	9.6	1,367	1.3
1999	165,258	80.7	6,277	3.1	5,807	2.8	2,653	1.3	23,395	11.4	1,417	0.7
2000	187,931	82.1	7,252	3.2	9,631	4.2	4,489	2.0	15,609	6.8	3,922	1.7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III-2] 한국-중국간 항공 운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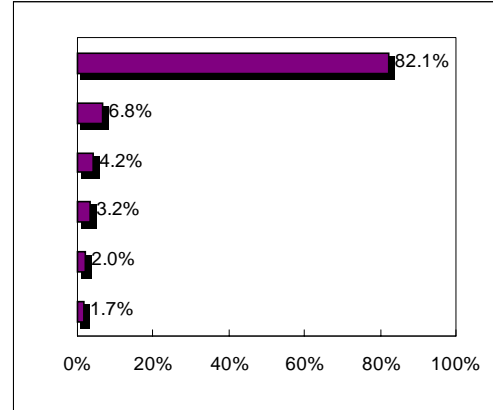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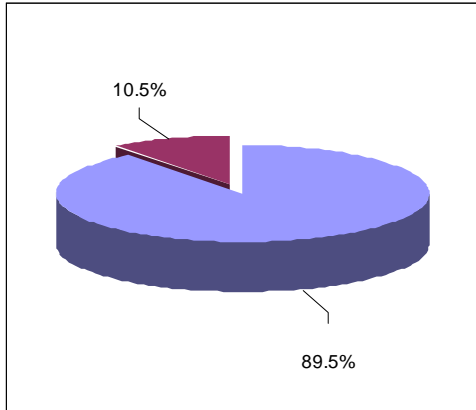


[그림 III-3] 한국-중국간 해상여객 항로



그 밖의 공항에 있어서도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 제주공항을 이용한 방한율이 근년에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95년 제주공항의 이용률은 0.1%였으나 2000년에는 4.2%로 증가하였다. 김포공항 이용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던 비율이 이들 공항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포공항의 이용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항과 항구를 통한 인천으로의 입국비율은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III-4] 방한중국인 항구·공항 입국비율(2000년) [그림 III-5] 방한중국인 지역별 입국비율(2000년)



자료 : 한국관광공사, 중국관광시장분석, 2001.

3) 중국인의 방한여행 실태분석

2001년 4월 현재, 문화관광부 지정 중국인 단체여행객 전담 여행사수는 총 48개이며, 한국 일반 여행업 협회(KATA)가 지정한 15개의 지정여행사가 중국관광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서해안권에서는 인천에 전담여행사 2개, 전북에 1개이고, 경기, 충남, 전남에는 1개도 없다. 전국 63개 중 서울에 전담여행사 37개, 지정여행사 13개 등 50개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시·도별 중국전담 여행사 현황(2001년 4월)

구 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 담 여행사	37	5	2	-	-	1	-	-	-	-	1	-	-	1	1	48
지 정 여행사	13	-	-	-	1	-	-	-	1	-	-	-	-	-	-	15
계	50	5	2	-	1	1	-	-	1	-	1	-	-	1	1	63

자료 : 한국관광공사, 중국관광시장분석, 2001.

중국 전담여행사의 의견조사로 본 중국인의 한국여행 실태로, 2000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상위 10개사 중 8개사의 중국 인바운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관광의 장점은 겨울철의 눈과 스키 및 스키장, 제주의 경관, 사계절, 발전된 시내모습, 중국과의 근접성, 쇼핑기회 등의 응답이 나왔다.

현재 방한여행 상품은 서울에서 2박 하는 '2박 3일 상품', 제주 1박, 서울 2박으로 구성된 '3박 4일 상품', 부산 1박, 제주 2박, 서울 1박으로 구성되거나 혹은 부산 1박, 경주 1박, 서울 2박 3일로 구성되는 '4박 5일 상품' 등이 있다.

서울에서는 경복궁, 명동, 롯데월드, 전쟁기념관, 워커히 카지노, 월드컵 경기장 등을 방문하며, 제주에서는 성산 일출봉, 천지연 폭포, 도깨비 도로 등을 주로 방문한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용두산 공원, 자갈치 시장 등이 주 방문지이고, 경주에서는 불국사와 대릉원 등이 주요 방문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관광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으로는 고물가, 언어불편, 중국어 안내표지판 부족, 음식, 저렴한 호텔의 부족, 교통체증 및 주차곤란, 중국인에 대한 불친절 등이 지적되었다.

업계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 곤란한 점으로는 입국절차상의 문제와 저가의 여행상품 난무 및 업체간 과당경쟁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밖에 저렴한 숙소 부족, 가이드 부족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표 III-6>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여행사 대상 의견조사 결과

구 분	내 용
한국관광의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눈과 스키 및 스키장 ○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 ○ 저렴한 관광비용 ○ 뚜렷한 4계절 ○ 깨끗한 환경(거리풍경)과 잘 녹화된 산림 ○ 발전된 시내모습과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위락시설 ○ 쇼핑기회(동대문 일대) ○ 중국과의 근접성 ○ 같은 문화권에 대한 동질감 ○ 관광지에서의 상세한 설명
한국관광시 불편사항·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물가(비싼 식사비) ○ 언어불편(영어, 중국어 모두 안 통함) ○ 중국어 안내표지판(간판) 부족 ○ 음식(적은 양, 입맛에 안맞음) ○ 저렴한 호텔부족 ○ 쇼핑지 부족 및 쇼핑품목의 획일성 ○ 교통체증, 대형차의 주차곤란 ○ 중국인에 대한 불친절(명동, 일부 관광지 및 호텔)
주 요 방 문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및 인근 : 경복궁, 롯데월드, 에버랜드, 민속박물관, 민속촌, 워커히 카지노, 동대문, 남대문, 명동 ○ 제주 : 용두암, 성산일출봉, 도깨비 도로, 천지연 폭포, 목석원 ○ 부산 : 해운대, 용두산 공원,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 강원도 : 설악산, 스키장
유치상의 어려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절차상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까다로운 비자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 과정(의무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시간소요, ii) 인지세 부담, iii) 노동력 부담 · 이탈자 문제(관광객 이탈시 책임이 여행사 귀속) · 입국시 immigration에서의 차별대우 ○ 저가의 여행상품(너무 낮은 단체비)과 업체간의 과당경쟁 ○ 서울지역 호텔부족 ○ 가이드 부족
취급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박 3일 상품: 서울 2박 ○ 3박 4일 상품: 제주 1박, 서울 2박 ○ 4박 5일 상품: 부산 1박, 제주 2박, 서울 1박 부산 1박, 경주 1박, 서울 2박
개 발 유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투어 상품(부유층 대상) ○ 스키투어 상품 ○ 한류상품(드라마 촬영지 방문, 콘서트 관람) ○ 섬상품(한려수도, 제주 우도 등) ○ 쇼핑상품: 인삼

자료 : 한국관광공사, 중국관광시장분석, 2001.

입국절차상의 문제로는 비자발급이 까다롭고, 관광객 중 이탈자 발생시 그 책임이 여행사에 귀속되어 불법체류로 이어질까 항상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한국관광공사, 2001).

중국인의 한국 관광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은, 제주도(34.5%), 서울(33.6%), 롯데월드(24.3%), 에버랜드(15.8%), 경주(7.9%), 민속촌(7.9%), 휴전선·판문점(3.7%), 부산(3.9%), 설악산(3.3%), 기타(인천) 등(복수응답)으로 방한관광객의 관광코스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고, 개발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관광객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관광패키지 상품의 특성은 주로 서울-제주로 이어지는 4박 5일 상품이 많은 편이며,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관련하여 산업시찰이 포함된 상품들이 경주관광과 연계하여 장기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서울 및 경기지역의 놀이시설 등은 중국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코스이며, 남대문·동대문 등에서 쇼핑관광을 포함하는 관광상품이 인기가 있고, 옵션관광으로 워커히 쇼, 카지노 등이 인기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현식·김철원, 2001).

김철원(한국관광연구원, 1999)은 중국관광객 수용태세를 중요도-실행도(Importance-Performance)로 평가·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4가지의 매트릭스(matrix)로 나타났다.

첫째,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은 경우로 한문 표시 안내판, 한국 국민들의 친절함, 첨단·현대적 시설 및 건축물, 입맛에 맞는 중국음식, 편리한 교통수단, 다양한 쇼핑상품, 편리한 쇼핑장소, 다양한 체험의 기회, 차이나타운, 여행안내서, 고품격의 여행상품, 저렴한 여행상품, 한국의 전통음식, 택시기사의 친절함, 수준 높은 고급숙박시

설, 중국어 노래방 등이 관광서비스 관리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될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요도와 실행도가 높은 경우로, 화교안내원들의 노련한 통역 안내서비스와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놀이시설 등이어서 계속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항목들이다.

셋째는 중요도와 실행도가 낮은 항목은 마작 등의 카지노시설과 중저가의 숙박시설 등으로, 이는 해외여행의 초기단계이고, 여행비용에 민감한 중국관광객들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로 중요도가 낮으면서 실행도가 높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식·김철원, 2001).

한국에 바라는 여행코스는 서울-제주-부산-경주(35.6%), 서울-제주(18.2%), 서울-제주-부산(13.8%), 서울단독(12.7%), 서울-DMZ안보형(9.0%), 기타(7.5%), 서울-경기(이천 도자기촌, 인천, 에버랜드) 등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즐기고 싶은 한국 여행상품은 쇼핑관광상품(31.7%), 한국의 역사·문화와 관련한 상품(20.8%),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연관한 관광상품(19.5%), 롯데월드 등 놀이시설과 연계된 상품(17.7%), 한국의 자연경관과 관련한 상품(16.7%), 복합적 여행상품(2.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현식·김철원,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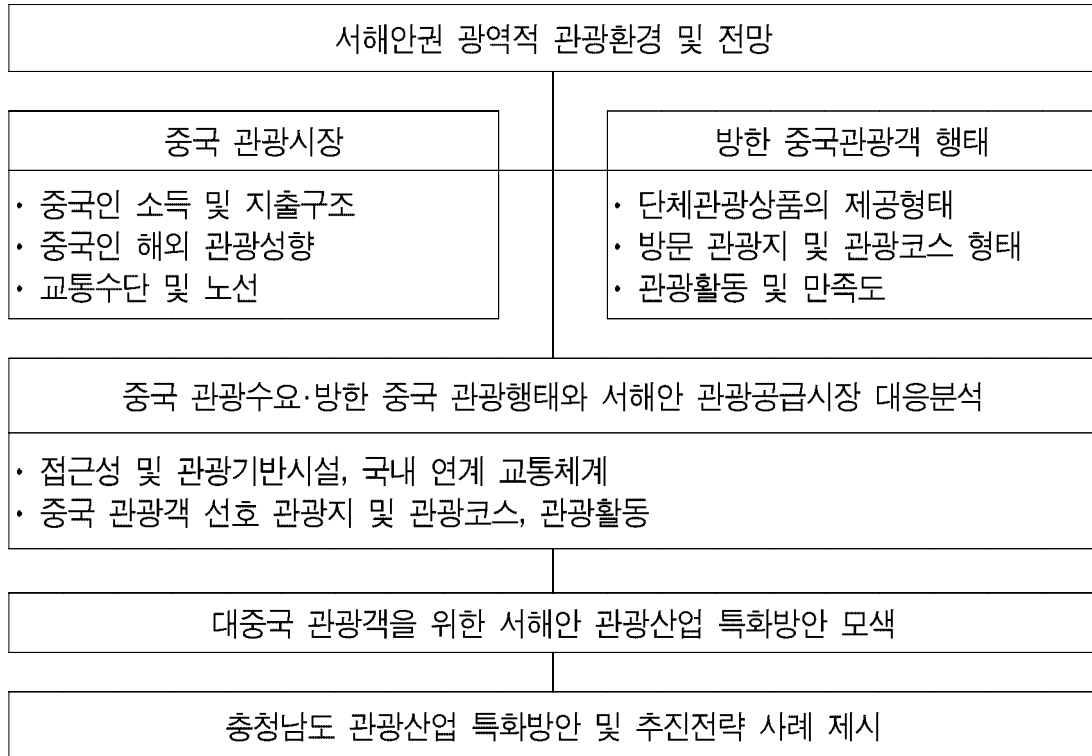
IV. 서해안 문화관광산업의 특화 방안

1. 서해안 문화관광산업의 특화방안 모색을 위한 접근의 틀

서해안의 문화관광산업의 특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의 관광 수요시장과 서해안의 관광공급시장을 대응·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관광객은 1998년부터 한국방문을 허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중국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관광수요시장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관광공급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서해안권의 광역적 관광환경과 전망으로 서해안 관광환경의 비전을 검토하고, 중국 관광시장의 특성과 방한 중국관광객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중국 관광수요시장과 서해안의 관광공급여건을 비교·분석하여 도출된 대응분석을 통하여 대중국 방한 관광객을 위한 서해안 문화관광산업 특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된 특화방안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사례를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특화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림 IV-1] 문화관광산업의 특화방안 모색을 위한 접근의 틀



2. 중국 관광수요에 대한 서해안 관광공급의 대응분석

서해안의 문화관광산업의 특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국의 관광수요를 분석한 후에 한국과 서해안의 관광특화 방안의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앞에서 분석된 중국관광시장에서 중국인의 소득 및 지출구조와 해외관광성향, 방한 교통수단 및 노선과, 방한 중국 관광객 행태로 관광상품에 대한 의견, 참여관광지 및 관광코스, 선호관광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중국 관광시장과 서해안 관광공급시장 대응분석

구 분		중국 관광시장 분석	서해안 관광공급시장 대응분석
중 관 시	소득 및 지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소득은 중국 동부해안지역 (상해시, 천진시, 광둥성 등) ·레크레이션·문화서비스 비용 급증(2000년 12.6%) ·중산층 급증(2억5천만명) ·인터넷 산업(연평균60~80%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국제공항·항구에서 서해안권 관광도시로 연결 ·중국인 대중관광을 위한 관광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서해안권 인터넷 관광상품 및 정보제공
	해 외 관광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 6월 한국여행 전면 개방 ·초청장 없이 해외여행 가능 ·현대화 된 도시, 오락, 쇼핑 선호 ·연안 경제개발구역 국외여행 주도 ·한국 여행 2020년까지 연평균 5.7%씩 증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인천·평택·보령·군산·목포간 관광전용 항구 개발 ·인천·평택·보령·군산·목포를 국제 거점관광도시로 개발 ·중국연안과 서해안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및 여행자유지역 지정
	방 한 교통수단 및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 정도 인천으로 방한 (인천공항 80%이상 방한) ·(인천항구 방한 6.8%) ·제주공항 증가추세(2000년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도시별 차이나관광타운 조성 ·인천·평택·보령·군산·목포·제주 단체관광상품 개발 ·인천에 대규모 중국관광타운 조성
방 중 국 관 광 객 행 태	관광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여행사 서울집중(서해안 3개) ·서울·부산·경주·제주상품 일색 ·업체간 과당경쟁 저가상품 제공 ·저렴한 숙박시설, 음식문제 해결 ·중국어 가이드부족, 불친절 해소 ·고소득층의 대상 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안권 광역지자체에 중국전담 여행사 집중 육성 ·관광거점 항구도시에 중저가숙박 시설, 중국전문음식점 등 확보 ·중국어 안내원 집중 육성 ·고소득층 대상 리조트 휴양지개발
	참 여 관 광 지 및 관광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지역에 편중 (제주도, 롯데월드, 에버랜드, 경주, 민속촌, 설악산 등) ·서울-제주-부산-경주(35.6%) ·서울-제주(18.2%) ·서울(12.7%) ·서울-제주-부산(13.8%)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관광객 선호 관광지 개발 (송도, 안면도, 군산, 목포 등) ·전국 대상 격자형 관광코스 개발 (서해안코스-경부코스-동해코스 - 남해안코스-경춘코스-중부내륙 코스 등)
	선 호 관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핑관광활동(31.7%) ·한국 역사·문화관광활동(20.8%) ·한국발전 산업관광상품(19.5%) ·놀이시설·테마파크 활동(17.7%) ·자연경관 감상활동(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인 선호 관광쇼핑센터 개발 (인삼, 의류, 식료품 등) ·산업관광상품개발(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지역별 테마공원 조성과 한국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관광코스 개발

3. 서해안 문화관광산업 특화방안

서해안의 문화관광특화방안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국의 관

광수요시장과 서해안의 관광공급시장의 대응분석을 통하여 서해안에 적합한 문화관광산업 특화방안을 살펴보았다

세부적인 특화방안의 모색은 중국 관광시장이 13억의 대규모 관광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연합광역자치단체·개별광역자치단체 등의 3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1) 국가적 차원의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 마련

① 「서해안문화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필요

영종도 신공항의 건설과 인천·평택·보령·장항·군산·목포항 등 양호한 항만시설 보유, 서해안고속도로 건설로 교통여건의 개선됨에 따라 서해안지역의 국제관광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서해안에 백령도, 강화도, 안면도 국제관광지, 보령 관광특구, 태안해안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흑산도, 홍도 등 수려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환황해권 교류 거점지역으로써 관광문화기능의 집중과 교류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다.

향후 서해안고속도로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등 내륙으로 연계되는 격자형 도로망의 구축으로 내륙연계의 양호한 교통망이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서해안문화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 서해-남해-동해안 3대 벨트형 종합적인 해양관광 활성화 필요
 - 남북통일에 대비한 신의주-묘향산-남포(평양)-인천-영종도 신공항-보령-장항/군산-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관광벨트형

해안관광상품으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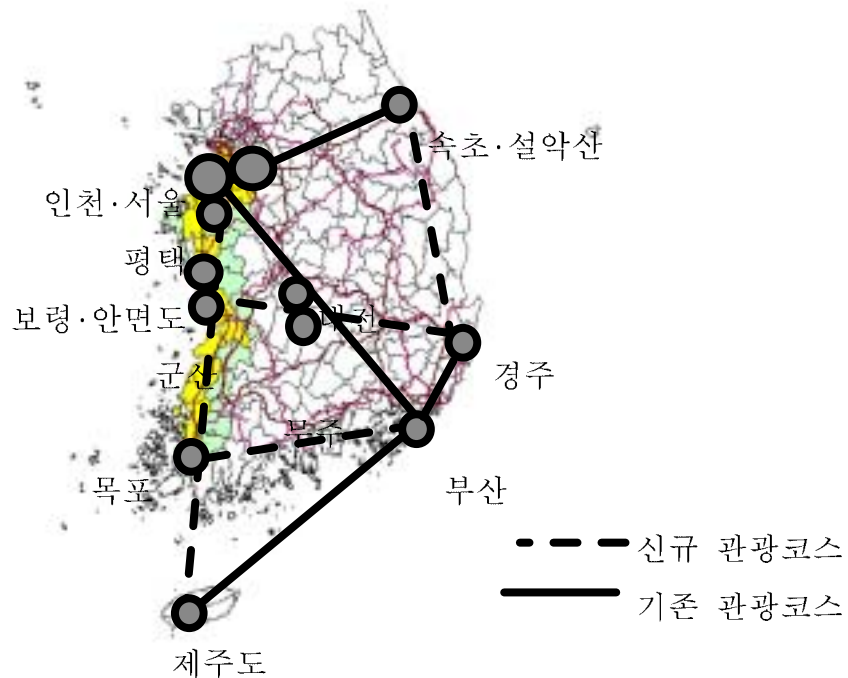
- 「환황해권 문화관광교류의 전진기지」 개발
 - 한국, 중국, 일본 등 연계의 문화관광기지 구축
 - 특히, 백제문화권과 중국을 해양으로 연결하는 문화관광교류의 테마 개발
- 「해안-내륙 연계를 위한 거점지」로 개발
 - 인천↔수도권 연계의 수도권 관광지 연계
 - 보령/안면도↔백제문화권 연계의 충청권 관광지 연계
 - 장항/군산↔무주/지리산/내장산 연계의 호남권 관광지 연계
 - 목포↔영산강문화권, 광주권 관광지 연계
-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의 관광루트」로 개발
 -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과 연계된 관광벨트 조성

② 전국차원의 중국관광객의 방문관광지와 관광코스 발굴과 상품화

중국을 비롯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관광코스인 서울-부산-경주-제주의 유형화된 기존 관광코스를 전국 순환형 신규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 전국 순환형 관광코스시스템 구축과 서해안관광코스의 상품화
- 서해안코스·경부코스·동해코스·남해안코스·경춘코스·중부내륙코스 개발
- 한-중-일을 연계한 크루즈 상품 개발

[그림 IV-2] 중국관광객을 위한 격자형 관광코스 구상도



③ 중국관광객 입국절차의 개선

선민의 관광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방한 중국인의 비자수속을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출국전 및 입국후 불법체류 관리 강화의 정책 채택, 순수 관광목적 방한 중국인의 전용 입국심사대 설치, 개별 비자 발급조건을 완화하여 초청장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 2000년 6월부터 방한여행이 자유화 된 이후 급증하는 중국관광객을 위하여 사증발급의 대상이 일반단체관광객, 개별여행객에 대한 조항 개정 등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한다(김철원, 1999).

2) 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중국시장 활성화 추진

① 중국 연계 관광항구도시 개발과 도시관광기반시설 확충

중국인들이 방문하는 관광항구도시에 숙박시설과 전문식당가, 쇼핑센터 조성 등 도시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인천, 평택, 보령, 군산, 보령 항구도시에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우수식당 지정 및 전문식당가 조성, 관광거점 도시별 대규모 차이나타운 조성, 중국어 안내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② 중국인 입국절차 개선

방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인천항과 같이 군산·평택·보령·목포 항구 등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의 출입국을 허용하여 광역지자체별로 중국관광객을 수용하여 지역관광으로 연결한다.

③ 중국관광객 전문여행사 인센티브 제공과 중국여행업자 팸 투어 실시

서해안 시·도별 중국관광객 전문여행사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고, 중국여행업자 팸 투어를 서해안권 5개 시·도에서 연합하여 추진한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마케팅을 강화하고, 중국관광객 전문여행사와 광역지자체별 중국어 홈페이지, 안내 및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어 안내체계 강화, 우수 중국어 가이드 양성 및 확충 등을 실시한다.

④ 시·도별 테마관광자원과 주제별 관광상품의 개발과 쇼핑관광 활성화

시·도별로 지역의 자원 특성별로 연계하여 고가, SIT 상품 등을 개발하고, 쇼핑관광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산업단지와 지역특

산품의 쇼핑센터를 건립한다.

- 테마관광자원 개발 상품화 : 한·중간 크루즈, 한류형 대형이벤트, 산업관광 인센티브여행상품, 스키관광(수도권, 무주권 등)
- 서해안관광코스예 주제별 관광상품 개발 : 쇼핑상품, 인센티브상품, 신혼여행, 안보형상품, 레저상품, 산업시찰, 온천휴양형상품, 해양형 상품, 참여형상품, 체육형 상품, 취미형상품, 출장형 상품, 청소년 상품, 노인상품, 식도락 상품, 나이트라이프, 역사탐방 등

⑤ 찾아가는 홍보서비스 활동 강화와 한·중 공동관광상품 개발

시·도별로 지역별로 중국의 송출실적이 많은 성·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체계적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중국 광동연한지역과 상해 시장 유치활동 강화, 스포츠 마케팅 전략 추진, 한·중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⑥ 서해안 문화관광벨트개발 추진위원회 구성과 한·중 연구기관 협력 추진

인천 한·중교류센터 중심으로 서해안 5개 시·도가 연합하여 가칭 서해안 문화관광벨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해안권 개발을 추진하고, 중국과의 문화관광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중 연구기관 협력으로 공동 세미나 개최, 관광관련 자료 교환, 관광인력 육성 교육, 공동관광상품 개발방안 연구, 공동관광투자협력 촉진방안 연구, 관광수용체계 개선방안 연구, 공동마케팅 체제 구축방안 연구, 연구인력교류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한다.

<표 IV-2> 중국관광객 유치에 위한 주제별 상품 분류

분 류	상품유형	상품의 구성
주 제 상 품	쇼핑상품	인삼, 재래시장, 의류, 피혁류 쇼핑
	인센티브상품	테마파크를 포함한 맞춤형 일정
	신혼여행	서울, 제주도, 인천-제주 Ferry호
	안보형상품	판문점(DMZ), 땅굴, 전망대, 전쟁기념관
	레저상품	서울근교의 테마파크(에버랜드), 송도유원지
	산업시찰상품	자동차, 조선, 철강, 간척지, 석유화학, 반도체
	대형이벤트 상품	국제행사(월드컵 등) 참가 상품
	온천휴양형상품	해수탕, 온천
	해양형 상품	해안도서(백령도, 안면도, 죽도 등)
	참여형상품	지역축제(보령머드, 한산모시, 백제문화제, 인삼문화제 등)
	체육형 상품	축구, 태권도, 궁술, 야구 등 스포츠 종목
	취미형상품	바둑, 마작
	출장형 상품	공무시찰 및 산업관광
	청소년 상품	수학여행 및 교환연수
	노인상품	해수온천, Health Tourism
	식도락 상품	한정식, 불고기(갈비), 삼계탕 등
	나이트라이프	중국어노래방, 카지노
	역사탐방	강화유적지, 내포문화권, 백제문화권, 영산강문화권 등
	한·중·일 크루즈 상품	한국-중국, 중국-한국-일본 등

자료 : 이현식·김철원, 인천지역 중국관광객 유치방안, 인천광역시·인천발전연구원, 2001.

4. 충청남도 중국관광객 유치방안

앞에서 제시된 서해안 문화관광산업 특화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청남도의 사례를 통하여 중국관광객 유치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충남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문화관광자원 등을 고려하여 중국관광객이 선호하고, 전국적 관광상품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기반여건의 조성

① 서해안 해양 관광거점도시 및 관광항구 개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로 인천 및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서해안 지역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관광축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을 아산·천안, 보령, 안면도·서산, 공주·부여 등에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령신항을 관광미항으로 조성하고, 보령-안면도간 연육교를 건설하여 안면도 국제관광지와 연결로 해양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대천·아산 관광특구에 관광호텔, 중저가 숙박시설 등과 중국관광객을 위한 중국음식 전문식당과 향토우수식당 등을 집적화시킨 식당가를 조성하여 중국관광객에 맞는 음식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안면도 꽃박람회장을 중심으로 국제적 리조트휴양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하여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행사장을 활용한 관광이벤트 상품(중국 곤명과 태안군 꽃박교류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벤트행사와 행사장을 종합한 해양리조트 휴양지로서 서해안의 휴양관광 거점지역으로 개발하여 방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② 서해안 음식특화단지 조성과 지역 특산물 센터 조성

중국인에게 식생활은 매우 중시된다. 숙박시설보다도 음식에 대하여 방한중국인을 위한 준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대 입장에서 한국인의 해외여행에서 특히, 중

국여행에서 중국음식에 대하여 겪는 어려움보다도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해안 관광거점도시 또는 관광지에 음식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중국음식과 중국인의 식생활에 맞는 한국전통음식으로 한정식, 불고기(갈비), 삼계탕 등을 제공해서 중국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그리고, 쇼핑관광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관광지 상가지구에 지역 특산물 판매센터를 조성하여 중국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는 인삼, 술(민속주), 식료품, 담배, 김치, 약세서리, 머드화장품, 전통민예품, 도자기·토기, 한산모시 등을 판매한다.

③ 한·중·일 연계 역사문화관광 코스와 내포·백제문화권 관광상품 개발

서해안의 내포지역은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발전시켰고, 일본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백제문화권 또한 한·중·일 교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방한중국인을 위한 관광코스로 상품화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중·일 문화탐방을 관광코스로 조성하고, 불교·천주교·관방유적·전통가옥·향토문화 등의 관광자원을 테마와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백제문화권을 경유한 내륙관광코스는 유성관광특구와 엑스포과학공원, 금산인삼쇼핑센터 등으로 연결되는 충남·대전을 경유하여 서울·부산·경주로 연결하는 경부축 관광코스로서 연계가 가능하다.

2) 지역의 자원특성을 활용한 중국관광객 선호형 관광상품의 개발

① 중국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놀이공원과 테마파크 조성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지역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방문을 희망하는 지역은 롯데월드, 에버랜드, 민속촌 등의 놀이공원과 테마파크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충남에도 아산온천, 상록리조트 등의 기존 온천과 물을 테마화하여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안면도 국제관광지, 대천해수욕장, 금강하구둑 관광지, 금산 서대산레저타운, 당진의 함상박물관 등을 다양한 놀이공원과 테마파크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외암리민속마을과 온양민속박물관, 현충사 등은 내포지역의 역사문화관광상품으로 방한 중국인에 선호 관광상품으로 가능하며, 아산시의 기존 관광호텔과 온천시설과 연계하여 중국관광객의 선호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 산업시찰·온천휴양·체육·문화교류 상품의 개발

중국 관광객이 가장 즐기고 싶은 한국여행상품에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연관한 여행상품(29.5%)이 3위이며, 기존의 관광패키지상품의 관광코스에는 포항제철과 현대자동차공장 견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대산 중화학산업단지, 아산 테크노파크와 현대자동차공장, 부여의 홍삼제조공장 등이 공무원 시찰 및 산업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

또한, 온양·아산·도고온천과 서해안 지역의 해수탕을 온천휴양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각 시·군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활용하여 축구, 태권도, 수영, 야구 등의 체육형 상품

과 문예회관을 활용한 지역 예술행사의 교류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도 필요하다.

③ 지역문화제와 이벤트의 대중국 관광상품 개발

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의 활용과 관련하여 이벤트행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관광상품화하고, 특히 백제문화제에서 중국과 문화교류행사, 금산인삼제의 축제체험과 인삼·약초쇼핑행사, 보령머드축제의 축제체험과 머드화장품 쇼핑행사 등을 중국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3) 대중국 문화관광상품 특화를 위한 지역여건 조성

① 중국관광객 유치에 위한 행정·제도적 여건 조성

충남지역 항구를 통해 중국관광객의 직접 입국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의 구축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숙박시설의 확보, 중국음식점과 중국인이 선호하는 전통음식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과 각 시·군의 행정적 지원과 민간사업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② 서해안 시·군 관광협회를 연합한 중국관광상품 개발 사업 전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수용태세의 구축에 충청남도과 시·군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중국관광상품의 개발은 지역 관광협회와 관광사업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내의 특화관광산업으로 다양한 중국관광상품을 발굴·

육성하고, 관광객을 만족시키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은 시·군지역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각 관광사업체에서 추진해야 한다.

③ 중국 관련 여행상품의 발굴·홍보와 전담여행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중국 관련 주제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발된 주제별 관광상품은 중국 전담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상품으로 판매되고, 중국의 여행업자 팸투어 강화와 한국측 및 중국측 전담여행사 및 지정여행사를 인터넷상에 소개할 수 있는 공동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V. 맺음말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관광시장으로서도 세계각국이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13억 인구의 거대한 해외여행시장의 잠재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측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인 방한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2000년 6월부터는 한국으로의 관광목적여행 허용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연도별 한국 방문객수는 1991년 78,640명에서 2000년 442,794명으로 연평균 19.2%가 증가하였다. 세계관광기구(WTO)에서는 중국인 한국방문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5.7%를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내어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동안 방한 중국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은 경부축이 중심이 된 수도권, 경주, 제주도, 부산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나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로 서해안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되므로 문화관광산업에 있어서 동북아권과 대중국 교두보거점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해안 관광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당위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관광시장수요와 서해안 관광공급시장을 비교분석하여 서해안 문화관광산업의 특화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문화관광사업 특화방안의 모색은 서해안에서 대응해야 하는 중국 관광시장이 13억인구의 대규모 시장이기 때문에 국가·연합광역자치단체·개별광역자치단체 등의 3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향후 보완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1. 김덕수·박형창, “서해안시대의 발전전략”, 제1회 서해안포럼, 2001.
2. 김원배 외, 환황해권 주요 항만도시간 연계망 구축전략, 국토연구원, 2000.
3. 김정연·이종상,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한 지역활성화 방안”, 제1회 서해안포럼, 2001.
4. 김철원, 중국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관광상품개발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9.
5. 김홍배·임재영,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지역별 관광산업 수출입 변화”, 한국관광학회, 제51차 학술심포지엄 및 정기학술발표대회, 2002.
6. 유진석, “중국경제 도약의 계기, WTO와 올림픽”, 「중국심포지엄」, 한국경제신문사·삼성경제연구소, 2002.
7. 이상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평가모형의 개발과 응용, 국토연구원, 2001.
8. 이현식·김철원, 인천지역 중국관광객 유치방안, 인천광역시·인천발전연구원, 2001.
9. 중국국가여유국(www.cnta.com), 「중국여유통계연감」, 2001.
10. 충청남도·국토연구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 2001.
11. 한광수, “중국시장, 하나가 아니다”, 「중국심포지엄」, 한국경제신문사·삼성경제연구소, 2002.
12. 한국관광공사, 중국관광시장분석, 1999.
13. 한국관광공사, 중국관광시장분석, 2001.
14. 한국관광연구원,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2000.